

광주·전남 저축銀 퇴출 없을듯

광주·전남지역 저축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해 당장 오늘부터 실시될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의한 '퇴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인력 340여명으로 경영진단반을 구성, 이미 상반기에 검사를 마친 10곳 등을 제외하고 전국 8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자산건전성 분류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실상 저축은행 전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는 셈으로, 경영진단반은 각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저축은행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지표를 다음 달 말까지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1 회계연도(6월 말 기준) 경영지표는 9월에 공시되지만 그전에 미리 핵심적인 사항을 점검해 육성을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내달까지 85곳 경영진단

동양 등 지역 6곳 BIS 5% 넘어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에 본점을 둔 대한과 동양, 무등, 골든브릿지, 센트럴, 스마트 등 6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경영공시 기준, BIS 비율은 대한 9.02%, 동양 8.19%, 무등 8.41%, 골든브릿지 5.97%, 센트럴 25.29%, 스마트 11.00%로, 금융위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한 BIS 비율 5%를 밑도는 저축은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 상반기 경영공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기준으로 BIS 비율 5% 미만의 저축은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지역 저축은행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에 경영진단에서 큰 지적을 받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진단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이 지역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금융

■ 광주지역 저축은행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

은행명	BIS 자기 자본비율	고정비율
대한저축은행	9.02	11.71
동양저축은행	8.19	27.54
무등저축은행	8.41(1월 중)	12.22
골든브릿지저축은행	5.97	6.37
센트럴저축은행	25.29	10.43
스마트저축은행	11.00	10.40
지역평균	11.31	13.11

지난해 말 경영공시 기준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안정기금을 조성해 상환 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것을 마련한 공적자금.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건강을 함께 드세요"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여름철 원기회복에 도움을 주는 더덕본말과 더덕블럭을 선보여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신세계 제공>

다시 부는 막걸리 열풍

광주 탁주사, 함양효과 발표후 판매 10% 신장

올해 들어 다소 주춤했던 막걸리 열풍이 함양효과가 들어 있다는 발표에 힘입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광주에서도 막걸리 열풍이 불고 있다.

4일 보혜양조(주)와 통계청의 광공업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막걸리(탁주)의 생산량이 지난 4월 3만5114kl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 오른 데 이어 5월에도 3만9543kl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16.8% 상승했다. 보혜의 파스퇴르 막걸리 '순회'는 지난 4월까지 80만병을 생산했으나 4월 함양효과가 들어있다는 발표 후 130만병이 팔려나가 무려 50%의 신장률을 보였다. 또한 광주무등산탁주, 송정 주조장 등 광주지역 중·소규모 탁주회사들 역시 4월 이후 판매량이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출하량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4월에 3만2544kl, 5월엔 3만7981kl로 각각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1%, 14.2% 오르며 두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량과 내수출하량의 이 같은 상승세는 앞선 두 달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막걸리의 생산량과 내수출하량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2월에 7.2%, 7.5%, 3월엔 1.3%, 5.7%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 생산량과 내수출하량이 감소한 것은, 막걸리가 주류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2009년 이래 처음이었다. 막걸리의 인기가 4월부터 되살아난 것은 막걸리에 함양효과가 들어 있다는 조사 발표의 덕이 크다는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최재호 기자 lion@연남뉴스

외환보유액 두달 연속 하락

전월보다 6억달러 줄어 3044억8000만달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044억 8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6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30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두달 연속 감소세다. 한은 국제국 국제총괄팀 신재혁 과장은 "파운드화의 약세로 파운드화 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운드화는 6월 중 2.4% 절하됐다. 신 과장은 "시장에서 영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데다 지난달 말 머린 킹 영란은행 총재가 그리스 재정위기를 이유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 파운드화 약세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유로화와 엔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6월 중 유로화는 0.8%, 엔화는 1.3% 절상됐다.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구성은 유가증권이 2766억8000만

달러로 90.9%를 차지했고, 예치금이 222억2000만달러로 7.3%,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이 35억8000만달러로 1.2%, IMF포지션이 19억2000만달러로 0.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은 6월 중 36억 달러 늘었고 예치금은 42억3000만달러 줄었다. SDR과 IMF포지션은 각각 2000만달러, 1000만달러 증가했다. 금은 8000만달러(0.03%)로 전월과 같았다.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를 유지했다. 1위는 중국이고 일본, 러시아, 대만, 브라질, 인도도 그 뒤를 이었다. <연남뉴스>

"알로에 처럼 촉촉하고 깨끗하게"

그린알로에, 바디케어 시리즈 4종 출시

알로에 전문 중견기업 그린알로에가 최근 40여개의 신제품을 이어 피부보호를 위한 스킨케어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했다.

그린알로에는 알로에와 천연 자연재료 성분을 통해 피부를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벨라 바디 클렌저 등 4개 제품과 유벨라 래디언스 립스틱 9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유벨라 바디 클렌저는 바디 샤워젤로 천연알로에추출물과 내추출 베타인, 알란 토티인 함유돼 싱그러움 향이 장점이다.

또 풍부한 거품생성력으로 피부부절을 매끄럽게 해준다. 유벨라 바디 로션은 5가지 천연물질과

쉐어 버터, 비타민, 알라토인, 베타인 성분을 함유해 빠른 흡수성과 끈적임 없는 사용감이 특징. 유벨라 래디언스 립스틱은 알로에추출물이 들어있어 보습력과 함께 촉촉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

밀착력이 뛰어난 무방부제 제품으로 9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정광숙 대표는 "전 제품에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제품력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품 업그레이드와 신제품 출시를 계속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예보, 부산저축銀 제외 3개銀 매각 추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의 저축은행들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4일 부산, 전주, 대전, 보혜 등 4개 저축은행의 재매각 방안을 확정해 이번주 내 재매각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예금과 투자금을 보강해 달라며 본점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나머지 3곳의 저축은행은 개별 또는 패키지로 묶여 매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방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에 대해선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에도 예보는 4개 저축은행을 '부산+전주저축은행' 패키지와 '대전+보혜저축은행' 패키지로 묶여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찰경매가 성립하지 않아 실패했다. <연남뉴스>

"새마을금고 설립하려면 5억이상 출자"

행안부 인가 요건 강화

오는 9월부터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면 5억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새마을금고 건립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금 요건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

서 5억원 이상, 그 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인가 심의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인력과 물적시설,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도 세부 요건이 정해진다.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원~1000억원은 1명, 자산 1000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은 300억 원~500억원은 1명, 5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이다. <연남뉴스>

古家 고향의 맛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건강보조식품입니다.

고가약소리탕

한/식/뷔/페
6,000원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소리탕
반마리 20,000원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준비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백숙

함양옥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컵 쪼**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점심특선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충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